

백두대간 종주 제14번째 산행기

생활환경표준과 화공사무관 최월영

백두대간27구간(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 ◎ 산행구간 : 댛재-두타산-청옥산-고적대-이기령-이기동
- ◎ 일시 : 2004년 3월 14일
- ◎ 산행 가이드

이번 산행구간은 댛재에서 두타, 청옥산을 너머 이기령에서 서비스 구간인 이기동으로 하산하는 정선의 경치 좋은 대표적인 산들을 지나가는 코스로 약 20km 정도 되는 거리다.

2004년 3월 13일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이 있기에 피곤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양재동 서초 구민회관 앞으로 11-3번 잠실행 버스를 타고 간다. 11시20분 고려관광버스가 도착하고 눈인

사 손인사로 안부를 묻고 17번 지정석으로 가서 사천왕들과 그 동안의 소사를 잠시 나누고 어둠의 장막안으로 달리는 사이에서 이구 대장님의 오늘 산행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오늘 산행은 강원도 정선의 대표적인 산인 두타산과 청옥산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강원도 산행이 시작되고 이젠 백두대간도 마지막 코스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태백산에서 산신제 지낼 때 나온 경비로 동해의 신선한 횡감을 선사한다고 하면서 내일 산행은 4시 30분경 출발한다고 한다.

버스는 여주 휴게소에서 20분 정도 정차하고 오늘의 목적지인 댛재를 향하여 출발하고 내일의 산행을 그려보며 눈을 감고 잠을 청한다.

새벽 4시 차는 댛재 휴게소에 도착하니 날씨는 벌써 봄을 알리는지 바람이 제법

훈훈하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하고 새벽 안개가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다. 4시 42분 대장의 출발 신호로 두타산을 향하여 마루금을 오늘도 힘차게 밟아 나간다.

☞ 댕재-두타산(04:42-07:00)

4시 42분 삼척시 미로면과 하장면을 연결하는 424번 지방도로인 댕재에서 공터 오른쪽의 북쪽으로 난 대간 마루금으로 올라선다. 초입에는“ 두타산 산신각”이 자리하고 있고 이 산신각 앞으로 표지기가 많이 달려 있으므로 초입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댕재 바로 아래 하장면 방향으로 약 30m 정도 내려가면 934봉까지 이어지는 임도가 있지만 정상적인 대간 길은 이 산신각 앞을 지나 북동능선으로 접어든 후 다시 왼쪽으로 급선회 해야한다. 댕재를 출발한지 약 10여분만에 길은 왼쪽으로 급선회한다. 방향을 서쪽으로 바꾸어 진행하기를 다시 10분 정도 934봉에 도착한다. 왼쪽으로는 댕재 아래쪽의 임도에서 올라오는 길로 추측되는 갈림길이 접속되는 곳이다. 어둠을 뚫고 목통령에 이르면 좌우로 내려서는 길이 완연하다. 댕재를 출발한지 1시간 30분이 지나가고 있다.

목통령에서 두타산까지는 오름길의 연속이

다. 구간 구간 0.5km 거리를 두고 두타산까지 남은 거리를 표시하는 이정표가 서있다. 목통령을 지나 제법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서니 1243봉이고 정상 1.5km라는 팻말이 서있다. 여기서부터 두타산 정상까지가 오늘산행에서 가장 가파른 구간이다. 목통령을 출발한지 50여분만에 드디어 두타산 정상에 도착한다.

정상에는 커다란 무덤이 먼저 반기고 언제 세웠는지 준수한 표석이 딱 하나 버티고 서있다. 그 옆으로 태극기가 꽂혀있는 계양대가 있지만 눈과 바람과 비에 시달려 초라하기 그지없다. 언제 어둠이 저 멀리 가버린지도 모르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온 두타산 아직 잔설이 채 가시지 않은 서늘한 바람이 우리를 긴장시킨다. 동해의 일출은 아직 우리에게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광경으로 운해를 드리우며 숨어 있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동서의 모습은 단연 대조적이다. 동쪽으로는 짙은 운무가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고 서쪽으로는 삼척시 하장면일대가 또렷이 조망된다. 정서쪽으로는 망지봉이 조망되고 북서쪽의 청옥산이 잔뜩 운무를 안고 서쪽은 사면만 모습을 드러내고 그 뒤로 중봉산이 어렵된다. 동서가 이렇게 완연하게 구분되다니...

☞ 두타산-(식사)-청옥산(07:00-09:05)

북서쪽으로 난 청옥산방향으로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고“ 청옥산 7.5km”로 표시되어 있다.(아다도 실측거리를 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나즈막한 조릿대 길을 헤쳐 청옥산을 향한다. 두타산을 내려서 평평하게 이어지는 길을 따라 40분만에 박달령에 이른다. 이곳에 이정표가 있고 무릉계곡으로 내려서는 등산로가 완연하다. 박달령을 지나면서부터는 청옥산까지 완만한 오름길의 연속이며 도중에 너덜길을 지나쳐야한다. 너덜지대 오기 전 공터에서 오늘의 산행을 위한 아침식사를 한다. 오늘의 메뉴는 만두라면, 돼지볶음, 대구전, 줄줄이비엔나 소세지 구이에 반주로는 홍주+백세주+소주가 합쳐 지니 산중의 단찬으로는 가히 성찬이다. 바람도 불지 않고 햇볕이 비쳐주는 고운 언덕에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08:31 청옥산을 향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골짜기에 개스가 차오르는 것이 기온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한다. 너덜자대는 바위가 디끄러우므로 조심해야한다. 박달령에서 청옥산까지는 약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청옥산 직전에는 왼쪽 샘터와 오른쪽 학등 코스

로 내려서는 사거리 갈림길이 있으며 이정표가 설치되어있다.(학등 12km) 청옥산은 여기서 채 1분도 걸리지 않는다. 정상은 헬기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이정표가 자리하고 있다. 오늘산행의 최고봉(1403.7m)이다.

청옥산에서 대간길은 언뜻 지형도상으로는 정면으로 이어지는 능선으로 추측하기 십상이지만 우측 아래 내리막길로 접어든 후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타야한다. 정면으로는“ 등산로 아님 뗏말이 붙어있고 이 길을 따르게 되면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로 빠지게 된다.

☞ 청옥산-연철성령-고적대(09:15-09:34-10:06)

청옥산을 지나 연철성령까지는 수더분한 내림길의 연속이다. 연철성령에서는 우측으로 사원터를 지나 무릉계곡으로 이르는 등산로가 잘 닦여있다. 대부분의 등산인들이 두타산성으로 두타산을 오른 뒤 청옥산을 지나 이곳 연철성령에서 하산하는 Normal코스다. 연철성령에서 오름길을 올라서면 단아한 바위가 기이하게 자리하고 있고 그 옆으로 멋들어진 노송이 있는 당군대다. 이후 잠시 내려서니

고적대가 북쪽 바위의 일부를 드러내며 앞을 가로막는다. 나뭇가지 사이로 도슴을 드러낸 고적대의 일부가 한없이 높아만 보인다. 동쪽사면이 하얀 속살을 드러내며 지레 겁부터 준다. 언뜻 보기에는 바위암릉을 올라서는 길이 열리지 않을 것만 같지만 고적대 서쪽사면으로 조심스럽게 올라서면 확보물을 내어주며 올라서는 길이 있다. 암장을 조심스럽게 올라서야 한다. 고적대정상이가 가까울수록 경사도는 높아지고 이마에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오늘의 고비길이다. 고적대정상 전 약 20m 정도에 전망이 좋은 바위가 있고 여기에 서면 신선경이 따로 없다. 동쪽으로는 흐릿한 개스가 시야를 가리고 서쪽으로는 허티를 낮추며 끝없이 이어지는 지릉들이 그 끝을 보이지 않는다.

고적대정상에 서니 조그마한 표석이 고적대(1353.9m) 정상임을 알린다. 휴식을 취하며 무아지경에 빠져본다. 청옥산에서 50여분 정도가 소요된 셈이다.

☞ 고적대-갈미봉-이기령-이기동(10:17-11:14-13:17-14:43)

고적대에서는 독도에 신경을 써야한다. 언뜻 정면으로 난 평퍼질한 능선으로 접어

들기 쉬우나 이 길은 서쪽으로 이어지는 중봉산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대간길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서야 한다. 약 10m 거리에 산림보호 경고판이 설치되어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적대구간을 지나면서부터는 등산인들의 발길이 적어서인지 잡목들이 상당히 걸리적거린다. 고적대를 지나면서부터 오른쪽으로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절벽 아래로 개스를 벗삼아 이기령을 목표로 열심히 진행한다. 고적대를 지나 약 25분 정도 진행하니 우측으로 사원터로 내려가는 이정표가 있고 초입이 흰하게 드러나 있지만 안내책자에 의하면 사람의 왕래가 적은 탓에 별로 낯한 단한 탈출로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후 20여분 정도 암릉길을 따라 더 진행하니 우측 길은 운무사이로 멋지게 흘러내리는 암릉지대를 만나게 되는데 마치 중국영화에 나오는 신선경을 방불케 한다. 갈미봉에 대한 표지가 없으므로 이곳쯤이 갈미봉이 아닌가하고 추측해 보지만 여기서 12분정도 더 진행한 후 나타나는 또렷한 봉우리가 진짜 갈미봉이다. 이후 20여분 정도 더 진행하고 나니 1142.8봉에 이른다. 왼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있지만 여기서 우측길로 접어 들어야한다. 898봉에 이르기 전 능선이 왼쪽으로 꺾이면서 이어진다. 왼쪽으로 임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평퍼진하게 이어지는 내리막을 급하게 내려서니 철탑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기령이다. 갈대가 자리를 만들어 지나가는 산사이들의 마음을 붙잡으니 어찌 그냥 가리오. 갈대밭을 멍석 삼아 오늘의 산행을 마감하기 위한 만찬을 벌이니 배낭에 남아있는 음료수와 음식 자원이 갈대밭을 적시고 이기령 산신령이 시끄러워 낮잠을 잘 수가 없다. 오늘의 대간길은 여기서 접고 버스가 기다리는 이기동을 향하여 소나무 숲 사이로 부지런히 발길을 움직인다.

오후 14:40여분 오늘의 산행 종점인 이기동에 도착하고, 이구 대장님이 사오신 동해의 생돌고기로 허기를 달래니 잇몸 치료로 술을 먹지 못하는 신세가 처량하다. 이런 때는 눈을 질끈 감고 술 한잔하고 싶지만 참고 무리에서 벗어나 버스에서 눈을 감고 피로를 날려보낸다. 4시30분 서울로 차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오늘의 산행은 여기서 접는다. 2주 후 밤에 찾아올 것을 기약하며.

백두대간 28구간(아직 봄은 저 아래에 있네)

◎ 산행구간 : 이기동-이기령-상월산-백복령-생계령-석병산-두리봉-삼달령

◎ 일시 : 2004년 3월 28일

2004년 3월 27일 이젠 서울의 밤바람에 서도 봄이 오고 있는 것을 느낄 정도로 훈훈한 기운이 몸을 감싸는 오후 10시 35분 일주일의 피곤을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부지런히 움직인다. 10시 50분 잠실행 버스가 오지 않고 마음이 급해진다. 겨우 11시가 다되어서야 버스에 몸을 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초 구민회관으로 마음이 향하고 내일도 날씨가 좋기를 빌어본다. 11시 25분에 겨우 고려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사천왕과 먼저 인사를 나누고 다른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정석에 앉아 멀어져 가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본다. 곧 이어 이구 대장님의 오늘 산행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오늘 원래는 생계령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고산자회 회원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백복령까지 진행하고 정동진에서 점심 및 단합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일단 우리 사천왕은 백복령까지 진행해 보고 다음구간인 백복령에서 삼달령까지를 전진하기로 하고 억지로 눈을 감

는다.
 2주전에 내려 왔던 이기동 다리목을 2004년 3월 28일 새벽 4시에 도착하여 산행준비를 하고 조금 전진하니 이기동 이장님께서 길을 막고 대표자 3명이 산불방지 각서를 써야 산행을 허락한다고 하여 사천왕 4명 모두 각서를 쓰고 다른 회원들은 가파른 임도를 부지런히 올라간다. 날씨는 영상 5도 정도이고 약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정도로 산행하기에는 정말 좋은 날씨이다. 이런 날씨이면 삼달령까지 전진하기로 하고 사천왕은 선두에서 부지런히 이기령을 향하여 움직인다.

새벽 5시 25분 이기령에 도착하여 잠시 가쁜 숨을 정리하고 상원산을 향하여 어두운 마루금을 더듬어 오르기 시작한다.

☞ 이기령-원방재-백봉령 (05:25-06:40-09:50)

이기령에서 철탑이 있는 쪽으로 올라서면 울창한 소나무숲이 이어진다. 약 12분 정도 진행하니 잘 닦여진 헬기장이 있는 970.3봉이다. 이후 20분정도 더 진행하게 되면 오뚝한 봉우리가 하나 나타나고 이 지점이 상월산이다. 나무판으로 누군가가 상월산 표지판을 붙여 놓았다. 어둠의 장막이

걸치고 있는 동해를 바라보며 증명사진을 찍는다. 상월산을 지나면서부터는 왼쪽으로 한참을 떨어진다. 힘들게 올라온 길을 너무 내려가는 것 같아 손해 막심한 기분이다. 작은 고개 하나를 지나 다시 떨어지니 옛길의 흔적이 뚜렷한 원방재에 이른다. 이기령을 지나 1시간 15분이 소요되었다. 원방재는 왼쪽 정선군 임계면 방향의 임도로 내려서는 길과 오른쪽 동해시 신흥동으로 내려서는 길이 완연하게 나타난다. 신흥동 방향은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한다.

원방재 마루금 초입에는 산악회들이 붙여 놓은 꼬리표가 성황당을 연상할 정도로 많이 붙어 있고 이젠 밤이 물러가고 새로운 새벽이 다가와 헤드랜턴을 벗고 싱그러운 아침 공기를 가슴 가득히 안으며 다음 구간을 향한다. 원방재에서는 꼬리표가 많아 대간가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다. 얼마 가지 않아 물길인 듯한 골을 하나 지나치게 되고 이후 잡목들이 빼곡한 길을 지나치게 된다. 넓지도 않은 어깨가 자주 나뭇가지에 부딪히곤 한다. 왼쪽으로 크게 돌아서니 헬기장이 있는 1022봉이다. 원방재에서 55분이 소요되었다. 앞으로 백봉령까지는 약 4.5km가 남은 거리다.

북쪽으로 이어지는 나지막한 봉우리를 몇

개 지나니 987.2봉에 이른다. 여기서 약 45분 정도 더 진행하여 832봉이 가까워질 무렵 갈림길이 나타나며 여기서 표지기가 빼곡히 걸려있는 왼쪽 길을 택해야 한다. 우측으로 난 길은 동해시에서 백봉령을 거쳐 정선군으로 이어지는 42번 국도로 내려서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42번 국도가 포장되면서 백봉령은 자병산 아래가 된다. 이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접어든 후 5분 정도 거리에 832봉이 나타난다. 여기서부터는 오른쪽 바로 아래에서 차량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지척에 들린다. 이후 순탄한 길을 12분 정도 내려서면 헬기장 하나가 나타나고 다시 3분 후에 전기철탑, 이어서 5분 정도 내려오면 오늘산행의 종착지인 백봉령에 이른다. 우리가 제일 먼저 도착하였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산행구간도 짧고 날씨도 좋아 원방재에서 잔치를 벌였다고 우리를 바로 따라온 두 분이 알려준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이구 대장에게 사천왕은 삽달령 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연락하고 철탑 옆을 스쳐 조그만 봉우리를 올라간다.

13 백봉령-생계령(10:00-11:35)

백봉령은 행정구역상 강릉시 옥계면과

정선군 임계면의 경계이지단 실계로는 동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동해시에 훨씬 가깝다. 정선으로 넘어가는 고개마루에는“ 아리랑의 고장 정선”임을 알리는 대형 표석이 서있다. 철탑이 있는 울타리안으로 들어서니 넓다란 평지에 묘목이 잔뜩 심어져 있다.

철탑 아래에서 북서쪽으로 난 오름길로 접어든다. 8분 정도 오름길로 올라서니 42번 철탑이 앞을 가로 막는다. 그 아래 나무로 만든 안내판이 자리하고 있다. 정면 방향으로는 자병산(872.5m)으로 표시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석병산 방향이 표시되어있다. 원래의 백두대간 길은 자병산을 오른 후 다시 내려서게 되지만 (주)한라시멘트 석회석 채광으로 인해 자병산 정상부는 이미 그 모습을 잃고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곳 철탑이 있는 834봉 직전에서 왼쪽으로 869봉으로 건너선 후 생계령으로 다투금을 타야한다. 철탑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자병산쪽에서 요란한 중장비소리가 대간의 허리를 잘라내고 있다.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오른쪽 숲 사이로 간간이 절개된 자병산의 모습이 간헐적으로 보인다. 내리막길로 접어든 후 약 7분만에 43번 철탑이 나타나고 이어서 3분 후

에 42번 국도에서 자병산 채광지까지 연결되는 차도를 만나게 된다. 백봉령에서 20분 소요, 차도에 서게 되면 정상부가 잘려져 나간 자병산의 전모가 드러난다. 요란한 기계음 소리는 실체를 잃어버린 자병산의 신음소리로 들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차도를 가로지르면 대간은 임도길로 접어든다. 이미 사용한지가 오래된 듯한 임도를 따라 올라서니 잡초만 무성하다. 대간길은 임도에서 산능성으로 올라서고 다시 임도에 접어들기를 반복한다. 차도를 건너 오름길로 10분 정도 올라서게 되면 44번 철탑을 만나게 되고 이어서 다시 5분 후에 45번 철탑에 이르게 된다. 45번 철탑을 지난 후 다시 3분 후에 철탑 하나를 더 만나게 된다.

임도 좌우로는 이곳 지형단의 특색인 카르스트지형으로 움푹 들어간 돌리네(속칭 쇠곳)라는 특이한 지형을 여러 곳 만나게 된다. 다시 임도에서 산능성으로 접어든 후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면 796봉에 이르고 여기서 평퍼짐하게 이어지는 능선의 끝 지점에 반듯한 헬기장이 하나 나타난다. 채광지 차도를 출발하여 이 헬기장까지는 약 40분이 소요된다.

이후 10분 정도 후에 작은 봉우리 하나를

지나치게 되고 여기서 10m정도 진행하게 되면 무덤 1기가 나타나고 주변이 약 30여평 정도 되는 넓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이 무덤가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작은 고개 하나를 지나 오름길 후 20분 정도 더 진행하게 되면 고개 흔적이 뚜렷한 4거리 안부인 생계령에 이르게 된다. 백봉령을 출발한지 1시간 35분이 소요되었다.

☞ 생계령-석병산(11:35-15:00)

생계령에 이르면 왼쪽 정선군 임계면방향의 큰피원으로 내려서는 임도가 있고(임도를 따라 약 2.5km 정도 내려서면 42번 국도상의“ 백봉령 휴게소”에 이르게 된다.), 오른쪽으로는 강릉시 옥계면 성황댕이로 내려가는 희미한 소로길이 보인다. 자병산 채광지도로에서 만난 임도는 이곳 생계령까지 줄곧 왼쪽 가까이에서 따라온다. 생계령에서 정면으로 난 석병산방향으로 서서히 고도를 높여가며 뒤돌아본 자병산은 정상부가 잘려져 나가 허영게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쉬엄쉬엄 서쪽으로 20분 정도 올라서니 829봉이다. 829봉을 지나면서 방향은 다시 북으로 꺾이게 되고 10여분 정도 더 진행하게 되면 능선상에 멋들어진 소나무 한 그루가 나타나고 그 뒤로 아름

드리 고사목이 쓰러져 등산로를 가로막고 있다. 여기서 10여m 정도 더 나가면 몇 그루 고사목이 멋지게 서 있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서쪽으로 높다랗게 보이는 봉우리가 922봉이고 이 지점에서 922봉까지는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 오르게 된다. 능선이 왼쪽으로 꺾이며 922봉을 올라서는 가파른 오르막이 진행된다. 백봉령~석병산~삼당령 구간 중에서 가장 가파른 길이 아닌가 싶다. 가파른 오르막을 비지땀을 흘려가며 올라서니 바위날 등으로 이루어진 922봉에 이르게 된다. 바로 앞으로 931봉이 자리하고 있다. 922봉을 지나면서부터는 우측 아래로 가파른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바위날 등을 따라 열다 진행하지 않아 931봉에 이르게 되고 이후 평탄하게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25분 정도 진행하게 되면 900.2봉이다. 900.2봉에 이르게 되면 77년 건설부에서 제설한 434번 삼각점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왼쪽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능선으로 희미하게 길이 나 있으나 이 길을 따르게 되면 왼쪽 아래 일계방향의 금방동으로 떨어지는 길로 추측된다. 900.2봉에서 석병산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서는 비스듬한 사면길로 접어 들어야 한다.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속에서는 곡

기를 요구하는 신호가 전달되어 잠시 산행을 접고 그늘을 찾아 점심요기를 위한 밥상을 차려 허기진 배를 채우며 잠시나마 다리를 쉬게 한다. 이때 오늘의 산행 중 마주오는 산꾼들을 만나니 반갑고 즐겁다. 이번 구간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지나가는 일반 등산객을 처음 만났다. 조릿대 길을 따라 내리막으로 접어들고 15분 후에 평퍼짐한 안부가 나타나고 왼쪽으로는 금방동으로 내려서는 갈림길이 뻗는다. 이 갈림길이 나타나는 지점에서 10분 후에 헬기장이 있는 908봉에 이르게 된다. 동쪽 아래로는 흐린 날씨로 인해 조망이 엉망이다. 남서쪽 방향의 자병산 쪽 능선은 가물가물하게 이어진다. 여기서 북쪽 방향으로 10여m 정도만 진행하면 석병산이 한 눈에 보이는 조망 좋은 곳이 나타난다. 이후 30여분 가까이 북으로 진행하니 다리 쉼을 하기 좋은 무덤 1기가 나타난다. 이 무덤에서 8분 정도 진행하면 우측으로 뚜렷한 갈림길이 하나 나타나고 강릉시 옥계면 성황탱이에서 올라오는 길이다. 이후 다시 5분 정도 진행하니 헬기장이 하나 나타나고 여기서 20m 정도 후에 왼쪽으로 갈림길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길은 석병산을 거치지 않고 우회하는 샅거리이다. 이 갈림길

에서 채 5분도 되지 않아 삼각점이 있고 암릉으로 절벽을 이룬 석병산(1055.3m) 정상에 이르게 된다. 생계령 출발후 식사시간 포함하여 3시간 25분이 소요되었다.

석병산 정상은 최고의 전망을 제공한다. 사방으로 막힌 곳이 없다. 정상부는 약 1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진 두개의 암봉이 자리하고 있으며 바위 아래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멋지게 서 있고 그 옆으로 길지는 않지만 자연동굴이 하나 있고 동굴입구에는 돌을 잔뜩 쌓아 두었다. 건너편 암봉으로 올라서니 푸석돌로 이루어져 있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 사진이라도 한 장 찍으려니 자못 불안하다. 석병산 북쪽 아래로는 까다득한 낭떠러지로 이루어져 있고 두리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상에서 뒤돌아본 모습은 마치 병풍을 두른 듯 바위암릉이 절경을 이룬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상에서 동쪽으로는 옥계면 상황지대로 곧바로 내려서는 하산로도 보인다. 대간길에서 조금 벗어난 석병산을 그냥 지나쳐 갔다면 절경을 잃어버릴 뻔하였다고 하면서 또 하나의 명물인 일월문도 가히 일품이다. 일월문은 석병산 바로 아래 있는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곳으로 구멍 바로 아래에는 천길 낭떠러지이다. 구멍 사이로 보이는 조그만 돌산은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신비로움을 모른다. 그 절경을 장소의 협소함으로 사진에 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 석병산-두리봉-삼달령 (15:20-15:56-17:06)

석병산에서 두리봉으로 이어지는 길은 온 길을 10m 정도 되돌아가서 길이 갈라지는 서쪽 사면길로 접어들어야 한다. 북서쪽으로 15분 정도 진행 후에 헬기장이 나타나고 여기서 방향은 다시 북으로 꺾인다. 평지처럼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다시 20여분 정도 진행하니 두리봉 정상(1033m)이다. 남서쪽으로 삼달령으로 추측되는 지점이 조망된다. 이후 순탄하게 내려서는 길을 따라 1시간 만에 삼각점이 있는 868봉에 이르게 된다. 고개를 조금 올라가면 공터가 있고 누군가가 나무에 동해택시 전화번호와 삼달령에서 동해로 가는 버스 시간표를 적은 종이판을 붙여 놓았다. 이후 남서방향으로 5분 정도 진행하게 되면 등산로가 오른쪽으로 90도로 꺾이면서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측으로 진행한다. 왼쪽으로 내려서는 능선 길은 계속 정선군과 강릉시의 경계를 따라 이어지는 길로 삼달령으로 이어지는 35번 국도

와 접하게 되지만 삽당령에서 남쪽 정선 방향으로 내려서는 길이다.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 후 5분 정도 후에 넓직한 헬기장을 만나게 된다. 헬기장에서 서쪽으로 떨어지는 급사면을 15분 정도 내려서면 삽당령에 이르게 된다. 정선과 강릉을 연결하는 삽당령에 이르기전 옥계면 목계리로 이어지는 임도를 먼저 만나게 되고 이 임도를 따라 내려서면 삽당령에 이를 수도 있지만 임도 건너편 숲으로 접어들어 2~3분 후면 삽당령에 이르게 된다. 석병산을 출발하여 그럭저럭 2시간 40여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오늘의 산행은 여기서 끝나고 동해택시를 호출한다. 그럭저럭 산행시작 후 13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자병산 ~삽당령 전구간은 등산객들의 통행이 뜸한 탓인지 온통 잡목이 걸터적거리고 어깨며 허벅지가 계속 잡목에 걸터적거리려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삽당령에 이르면 임도 옆으로 포장집인 "삽당령 쉼터"에서 막걸리며 과전 등 먹거리를 팔고 있다. 도로 건너로는 산령각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우측으로 백두대간 안내간판이 입체적인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된 안내판이 있다.

삽당령은 강릉과 정선을 잇는 백두대간

의 고개로 35번 국도가 지나간다. 삽당령 남쪽으로 흐르는 임계천은 한강의 발원지인 골지천(태백시 금대봉에서 발원)에 합류해 정선 아우라지(여량)에서 송천과 다시 합류하면서 동강으로 흘러 들고, 북쪽의 도마천으로 내려가는 물은 남대천이란 이름으로 강릉시내를 지나 동해바다로 빠져든다.

다음 구간인 삽당령 ~대관령 구간은 안내간판 옆으로 난 임도 초입의 산림청에서 설치한 "산불감시초소"를 지나 우측 숲길로 접어들어야 하며 숲길 초입에는 표지기들이 울긋불긋 걸려있다.

삽당령에서 동해택시를 기다리며 주막에서 막걸리 한사발로 허기를 달래었지만 동해택시는 오지 않아 산불감시요원을 설득하여 동해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차를 타고 오니, 산불감시요원왈 "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지켜야 할 사람이 산에 갔다 오는 사람 태워주니 참 이상하네요" 하면서 웃는다.

동해에서 저녁 7시 중앙고속버스를 오르니 피곤이 몰려오면서 차가 출발하기도 전에 눈이 감긴다.

오늘도 13시간을 산행하여 2구간을 한번으로 끝냈다는 뿌듯한 기분을 만끽하며.....!!!

♣ 대간길에 지나가는 이야기들

◎ 무릉계곡(武陵溪谷)

일명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무릉계곡은 두타산과 청옥산을 배경으로 형성된 골짜기로 기암절벽과 천연림, 폭포와 맑은 물로 시인묵객과 수도고승들이 많이 찾아와 풍류를 읊고 노닐던 곳이다. 1977년에 국민관광지 제1호로 지정된 곳으로, 무릉계란 이름은 고려 충렬왕 때 이승휴(李承休), 또는 조선조 선조 때 삼척부사 김효원(金孝元)이 작명하였다고 하나 전설이 구구하여 뚜렷한 근거는 알 수 없다.

기암괴석이 즐비하게 절경을 이루고 석장암동(石場岩洞)이라는 무릉반석(武陵盤石)은 1500여 평이나 되는 화강암으로 된 너럭바위로서 기이함을 안겨주고, 암석에는 기념명자(記念名字)가 음각되어 이채롭기 그지없다. 그 중 조선 선조 4년(1571년) 조선 4대 명필이요, 4선(四仙)의 한 사람인 봉래양사언이 쓴 “무릉선원(武陵仙源) 중대천석(中臺泉石) 두타동천(頭陀洞天)”의 12자와 하행방서(下行傍書)로 된 “혹호거사서(玉壺居士書) 신미중춘(辛未仲春)”이란 석각은 관광객의 좋은 기념 촬영터가 되고 있다.

한편 무릉계곡의 여러 명소 이름은 선조

때 이곳 부사로 있던 김효원이 지은 것이라 하며, 신라 27대 선덕여 왕때 명승 자장조사(慈藏祖師)가 창건한 삼화사(三和寺)가 있고, 이곳에 안치되어 있는 철불(지정문화재 제112호)에 새겨진 명문은 최근 학술발표에 의하면 국내최대의 글자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 구미정(九美亭)

임계면 봉산리(蓬山里) 300여 년 전 이곳은 썩밭이었는데 황씨 문중이 살면서 썩밭(蓬)자를 써서 ‘봉산’이라 칭한 곳) 앞으로 돌아 흐르는 남한강 상류인 골지천(骨只川)변 반석 위에 건축한 정자로, 조선조 숙종 때 공조참의를 지냈던 수고당(守孤堂) 이자(李)가 피서와 풍류를 즐기던 곳이다.

이 정자 주위에 아홉 가지 특색의 절경이 있어 구미정이라 한다. ①어량(漁梁· 폭포에 물고기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 비상할 때 돌 위에 통발을 놓아 잡는 경치) ②전주(田疇· 밭두둑 경치) ③반서(盤嶼· 넓고 편편한 돌) ④층대(層臺· 층층 절벽) ⑤석지(石池· 구미정 뒤편 반석 위에 생긴 작은 연못의 경치) ⑥평암(平岩· 넓고 큰 바위) ⑦등담(燈潭· 정자에 불을 밝혀 연

못에 비치는 경치) ⑧취벽(翠壁· 구미정 앞 석벽 사이에 있는 쉼터의 경치) ⑨열수(列岫· 구미정 주변 암벽에 즐지어 있는 듯이 뚫려 있는 바위 구멍의 아름다움) 등 9가지 절경을 이룬다. 이중 등담은 1978년에 간행된 <정선군지>에는 '澄潭(정담· 맑은 못)'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 직원리 묘혈

직원리 군대동에 있는 묘혈은 강릉시 옥계면에 연결된다. 사방 산으로 가로막혀 자연수가 흘러 내려 이 묘혈로 유입, 옥계면으로 통하는 것이 장관이다. 이곳은 임계카르스트 지형의 중간 부분으로

돌리네(이 지역 방언으로는 '쇠못') 지역이라서 지반 아래로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다.

돌리네 지형은 석회암 지질이 빗물에 녹아 움푹 파인 것으로 어떤 것은 동굴처럼 깊기도 하다.

◎ 임계리 도틀고지

옛날 임계1리 도틀고지 일대는 온 산이 모두 도토리 나무로 울창하여 마을 주민들은 도토리를 따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도토리 나무가 많은 곳이라 하여 '도틀고지'라는 이름이 생겨났으나, 지금은 도토리 나무가 그리 많지 않다. 